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평화학부전공

Applied Life chemistry

홍수영 선배님 ... 농촌진흥청

P.2

김용삼 선배님 ... 진코어

P.6

농업은 가장 큰 기회의 장입니다 농업에 뿌리를 둔 다양한 분야에 미래를 맡겨보세요=



응용생명화학전공 82학번
농촌진흥청
홍수명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82학번으로 농과대학 학부계열로 입학했습니다. 당시엔 1학년 때 교양과목 위주로 수학한 뒤 1년간 수강한 학점을 바탕으로 2학년 때 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2학년 진입 시에 농화학과를 선택하였고 1986년도에 정상적으로 휴학 없이 학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농촌진흥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은 1962년도에 설립한 정부기관이고 당시에는 수원시 서둔동에 있었어요. 외청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되어 있고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에 대한 연구와 농민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소속된 4개의 농업연구기관은 우리나라 농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를 하는 곳으로, 농업에 대한 환류 업무와 주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신분은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입니다.

농업 계열의 대학을 선택하고 공부하는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직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학교에서 배운 걸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농업 분야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장은 없다고 봐요.

농작물 육종에서 재배, 병해충 방제, 생활 환경 개선, 농업용 기계, 농업유전공학, 축산, 원예, 농자재 관리, 식품 가공 등 우리 농생대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연구와 지도 테마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약, 비료 등과 같은 농업용 자재의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농자재 평가과장 보직을 맡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에 사용하는 농자재는 국가가 관리하는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또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효과가 보증되는 효율적인 농자재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14년에 수원시 서둔동에서 전북 혁신도시로 내려왔고 주로 전주 지역에 있어요. 근무 환경은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니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이고 주로 연구 업무를 수행하니 대학과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복지는 연구직 공무원이라 국가공무원에게 해당하는 급여와 복지혜택을 균등하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9개의 급수로 세분된 일반직 직급체계가 아닌 연구사와 연구관 또는 지도관과 지도사로 이원화된 직급체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공무원이라 전망을 논하기는 적절하지 못하고, 요즘 세대가 희망하는 안정적인 직장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이 보장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라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 또한 장래 취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농생대에 진학한 사람으로서 어떤 분야로 진출할까 하는 고민도 많았는데 제가 학생이었던 당시 1980년대에는 과학이란 분야가 나라와 개인의 발전을 이끄는 큰 축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공부할 작정이었던 학우들이 많았지요. 저도 그중에 포함되었고 다만 어떤 분야를 계속 공부할까하는 고민을 했지요. 수원캠퍼스 2학년 시절부터 4학년까지는 어느 분야를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농화학과에서는 농약, 비료, 토양과 같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화학 분야와 생물공학이나 생화학과 같은 응용 분야 그리고 이런 전공 분야를 뒷받침해주는 기초 전공인 분석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등을 배웠는데 저는 그중에서 유기화학이 재미있고 관심이 많이 갔어요.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배경에서 움직이는 원자와 분자의 결합과 분리 등과 같은 것을 재미있게 공부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 대학원으로 진학 시에 제 흥미 분야와 가장 근접한 농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현재의 직장인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봐요.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연구 분야의 직장이고 학생 시절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죠. 당시 분위기를 보면, 공무원은 급여 등에서도 일반 사기업과는 비교가 많이 되니까 대부분 사기업체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기업체 중앙 연구소에 취업을 했다가 농촌진흥청으로 직장을 옮긴 경우입니다. 사기업체에서 근무 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업무에 매진하다 농촌진흥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로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민들의 입장을 고민하는 위치가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의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농약을 등록하는 일부터 등록된 농약이 농약 제조회사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의 안전, 즉 식품 안전에 관한 부분까지도 고민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당시 1980년대에는
과학이란 분야가
나라와 개인의 발전을 이끄는
큰 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공부할 작정이었던
학우들이 많았지요.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기화학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오래 전에 돌아가신 박창규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과목인데 특히 유기화학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내고 함량을 분석하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공부가 큰 이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을 합성하는 실습 기간이 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아하 우리 삶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유기화학이구나” 하고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대학원에 다니던 때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국가에서 시험을 치러 석사 장교라는 병역 의무에 혜택을 주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유용하게 군 병력자원을 관리하고 이공계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기회를 높이고자 한 한시적인 제도였는데, 제가 그 시험에 불합격하여 석사 졸업 이후에 군대에 간 것이 시련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석사 학우들에 비해서 군생활을 더 해야 한다는 게 젊은 나이에서는 참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군생활의 경험이 이후 닥쳐올 사회생활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화학 공부가 재미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공부가
큰 이쁨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유기화학이구나”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요즘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무하는 농촌진흥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일찍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해당 분야에 관한 공부와 진로 결정을 빨리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다른 분야를 준비하다가 차선으로 공무원을 생각하는 게 아닌, 공무원이 목적인 결심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추천하는 일과, ‘대학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로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포츠 활동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권하고 싶네요. 저는 현재 근무하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산악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등산과 같은 스포츠 활동이 심신에 유익한 장점이 있음에도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해 아쉬워요.

유심히 생각해보면 다양한 전공 수업에서 흥미가 생기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유기화학 과목에서 그런 흥미를 찾았고 이를 키워 관련 학문의 공부를 이어나간 것처럼요. 학업이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이공계 분야에선 교과 수업에서 흥미를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봉사 활동이 널리 퍼져 있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봉사 활동에서 느낄 수 있는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학창 시절에 느껴보길 권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봐도 될까요?

“전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으로 정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주어진 근무 기간이 정리가 되면 관련 분야의 연구활동이나 후배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농업은 가장 큰 기회의 장입니다. 미국의 재정 투자자인 짐 로저스도 젊은이에게 농대 진학을 권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고 미래의 환경변화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농산업의 기반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부족하여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럴수록 우리 후배분들이 진출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널려있다고 봅니다.

지식 사회이고 전문성이 가장 큰 덕목인 요즘 시대에 농생대 졸업생으로서 농업에 뿌리를 둔 다양한 분야에 본인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 길을 찾는 것보다는 가장 빨리, 그리고 남들이 인정하는 확실한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탄탄한 기본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보세요

응용생명화학전공 91학번
생명공학기업 진코어 대표이사
김용삼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91학번으로 입학하여, 농화학과 학사(91-96), 석사(96-98), 박사(98-02)과정을 거쳐 졸업하였으며, 석,박사는 퇴임하신 정진 교수님께 사사하였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진코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코어는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해 동물, 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고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동물, 식물의 유전자교정을 통해 동물, 식물 자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인간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형질로 교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 유전질환의 경우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는 일로 시작하여, 이를 적용해 동식물, 사람에 걸쳐 유전자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정하고 치료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진코어의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에서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하였고, 관련 업무에 열정이 있으며 실력과 마음, 따뜻함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의 근무 환경과 복지는 대기업 수준으로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미래는 바이오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다음으로 바이오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중 유전자가위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바이오 산업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전망은 아주 밝은 분야입니다. 다만, 전망이 밝은 만큼 관련 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하죠.”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 당시 저의 고민은, 과연 농화학과의 나의 적성에 맞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희 전공의 커리큘럼이 화학부터 생물까지 집중되지 않고 너무 폭넓다는 생각, 그리고 그 당시 Nature나 Science에서 접해 들던 내용들과 좀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부는 어디까지나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과를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배우던 내용이 Nature나 Science에서 접해 들던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Nature와 Science에는 genome sequencing 결과가 처음 소개되기 시작했고, 줄기세포, apoptosis 등 새로운 개념의 테마들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했던 연구는 옥신과 옥신 수용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물론 그 연구 자체는 식물 생장의 메커니즘 이해관점에서 중요한 주제였지만 그 당시 과학계를 이끌던 테마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박사까지 식물생리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항상 드는 아쉬움은 완전 경쟁 체제에 제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었고, 좀 더 경쟁이 치열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급부상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당시 하던 일을 좀 줄여가며 유전자 가위 기술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미래는 ‘DNA writing 시대’임을 느끼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현실화되고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는 DNA writing 시대라는 것이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이런 분야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픈 활동이나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신가요?

“영화 ‘가타카’, 도서 ‘GMO사피엔스의 시대’, 그리고 Youtube에 CRISPR를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이 나와요. 이것들을 한 번쯤 접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열리는 관련 분야의 포럼이나 강연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급격히 변합니다. 학부 때 미래의 내가 가게 될 진로를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 자신도 몇 년 후에 내가 할 일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 저 자신을 순간 순간 계속 변화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망하듯이.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지식입니다. 학부 과정은 아직 많은 것들이 모호하고 불확실하지만, 기본 지식을 다지며 그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급격히 변하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화학, 분자생물학뿐만 아니라 물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등 생물, 화학 계열의 기초학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화학을 4학년 때 재수강하였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계, 수학 관련 전공을 좀더 깊숙이 접해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수학과 통계 관련 전공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종사하고 계신 생명공학 분야에서 수학과 통계 관련 지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생물학의 거의 모든 데이터는 통계 처리가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연속변수일 수도, 비연속변수일 수도, 정성변수일 수도 있고 빅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떠한 샘플링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뢰도의 개념도 들어가야 하죠. 이 모든 것들은 통계학적 지식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빅데이터가 바로 사람의 생물학적 데이터입니다. 당연히 통계학적 처리가 들어가야겠죠.”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건강상의 문제로 원래 의도하였던 취업과 해외 포스닥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난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갑작스런 계획의 전환이 때로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자체로 행운도 불행도 아니며 단지 그것을 대하는 마음에 달릴 뿐인 듯합니다.”

선배님은 슬럼프 또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사건을 대하셨는지 조금 더 여쭙어도 될까요?

“슬럼프나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절대절망, 절대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적일 뿐이고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동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즉 인생 곡선의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데, 이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나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운동과 음악활동을 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동과 음악은 보거나 들을 때보다, 생산할 때 더 큰 삶의 활력을 주는 듯합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반복해 말하지만, 기본기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학점만을 위해서 족보나 수업 노트 위주의 공부보다 교과서를 반복하여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다 지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포럼, 강연, 연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열려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발걸음입니다.”

선배님께서 창업을 하셨는데, 혹시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꿈꾸는 후배들에게 더 해줄 조언이 있으신가요?

“창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하나는 아이디어 창업이고 하나는 기술 창업입니다. 우리는 알리바바, 에어비엔비 등 소위 아이디어로 성공한 기업만을 들어와서 환상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창업은 정말 천재적인 생각이 뒷받침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시대를 앞서가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운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가 하는 생각은 지구상에 100명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도 필요하지만, 저는 정말 건실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은 기술에 기반을 둔 회사이고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기반의 회사를 창업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관련 기술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후배님들에게 박사라는 라이선스를 따서, 향후 미래에 뚝 것으로 생각되는 기술을 조사하고 선택하여 최소 10년 정도 깊은 연구를 해보고 거기서 얻은 지적 재산과 노하우에 기반하여 창업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업에 투자할 준비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추천하는 일과,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일은 개론 수준의 책을 모든 분야에 걸쳐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입니다. 법학, 사회학, 정치학, 생물학, 물리학 등등... 전공의 길로 들어갈수록 그럴 기회가 적어지는데 학부 때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산은 융합 시대에 어떤 전공과 직종을 갖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울대 농생대에 입학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농생대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충분히 해낼 잠재력이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리더로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학부 과정은 그러한 신뢰와 자신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16기 이혜성
편집 | 16기 이혜성, 16기 이호영

2019 CALSIAN TEAM SE

응용생명화학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Applied Biology

김경성 선배님 ... 사카타코리아

P.10

김규량 선배님 ... 국립기상과학원

P.14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즐긴다면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응용생물학전공 79학번
사카타코리아 재직
김경성 선배님



먼저 선배님 본인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경성입니다. 제 학부 학번은 79학번이에요. 전공은 농생물학과 응용곤충전공을 했습니다. 학부 과정, 대학원 석/박사를 모두 모교에서 마쳤죠. 전공은 계속 농생물학 응용곤충전공이었어요.”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 ‘사카타코리아’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종자를 육종,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채소 종자와 화훼 종자를 판매하는 회사인거죠. 저희 회사의 연혁은 40년이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종자 업계가 그러하데 저희 회사도 IMF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97년에 ‘사카타’라는 일본계 회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했고 ‘사카타’ 회사의 자회사가 되었죠. 투자는 사카타에서 했지만 대부분의 종자는 국내에서 육종 연구하고 생산,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채소 종자 대부분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육종된 종자를 해외에서 생산하여 도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모토는 ‘품질’, ‘신뢰’, ‘봉사’로 삼고 있어요.

종자를 다루는 기업이고,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수출도 병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내에서 육종 개발된 품종을 생산하고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저는 부사장으로서 경영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혹시 경영 쪽을 맡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다루셨나요?

“제가 사카타코리아에 입사하기 전에는, 국내의 팜한농이라는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처음 그 회사에 입사를 했고 27년 가량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되었죠.”

물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계속 같은 업무를 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부서로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부서 이동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개발, 기획 업무도 했었습니다. 팜한농에서 최종 보직은 연구소장을 맡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분야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우선 종자 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해주시겠어요?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농사는 종자를 땅에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종자보다는 저는 농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농업은,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전체적인 생산 규모, 생산액만을 본다면 국내의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농산물은 인간 생명에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이런 모든 부분이 농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이 기여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대단하고 성장성과 확장성이 엄청난 분야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죠. 지역적인 차이와 속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쓸 겁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은 모두 농업으로 부터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농업은 1차산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농생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1차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2차, 3차, 4차 나아가 6차까지 볼 수 있는 확장된 시야를 갖는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자도 농산물의 한 분야로서 성장성,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농업은
영향력이 대단하고
성장성과 확장성이
엄청난 분야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학부시절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해요. 선배님의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사실 오기 전에 질문지를 보고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입학했어. 처음에는 고등학교로부터 해방이 되다 보니 술, 미팅 이런 것들을 막 좋아다니게 되고, 세월이 금방 흐르더라고요. 그 당시의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 79년도에 일어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10.26사건, 12.12 사태. 그러고 나니 제가 2학년이 됩니다. 제가 2학년이 되니까 5월 항쟁, 그리고 휴교령.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학부 때 내가 무엇을 했나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런 어려운 시국 속에서 선배들과 술을 마시며 시국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격동의 시대이다 보니, 제 진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의 1,2학년은 그게 다였던 거 같아요. 그건 저 뿐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그런 세태에 대한 공동의 고민을 안고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3학년까진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4학년 때, ‘이렇게 살아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다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대학원에 가서야 전공을 제대로 공부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하기 창피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깐요. 하지만 대학원에 가선 열심히 했죠. 이전에 워낙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깐.”

혼란스러운 시국에 대학생으로서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선배님은 학부 졸업 이후에 취직이나 다른 진로는 생각해보시지 않으시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셨나요?

“네, 다른 진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 되어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다 취직을 하게 되죠. 그 당시 취직을 택한 동기도 사실 취업을 해서 계속 돈을 벌자 라기보다는 뭔가 공부를 더 해보고 싶는데 돈도 충분치 않았고, 그 당시에 유학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가 1년 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좀 벌어서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해볼까 해서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나니 생각이 확 바뀌어서 공부는 뒤로 미루었죠. 박사 과정은 이후 회사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생각이 확 바뀌게 되었다 그러셨는데, 그 전환의 계기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간단합니다. 팜한농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취직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엔 산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 회사에 입사해서 보니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입버릇 같이 잘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사는 나라의 기준은 뭘까. 물론 정치가 안정되고 문화도 마찬가지로 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첫 번째 기준은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산업 기반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회사 동료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농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보자.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라는 얘기를 자주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꽤나 당돌하고 자만스러워 보일 정도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큰 힘을 만드는 것은 그 나라의 산업과 경제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실 애초에 기업체에 입사를 해서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컸었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뀐 케이스라, 애초에 생각했던 진로와는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입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냥 편하게 청바지 바람으로 갔다가 그 당시에 그 회사에 근무하던 선배님이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서 “너 이게 무슨 옷차림이냐. 이건 면접 예의가 아니다.” 하시면서 본인 정장 옷을 벗어서 빌려주었어요.

제가 선배 옷을 입고 면접을 봤었어요. 물론 합격은 했지만, 지금도 그 분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그렇게 했을 만큼 저는 취직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안되면 뭐 그런가 보지 싶었던 생각이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다음 질문으로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모든 분야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과목이나 과정이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 모든 과정이 도움이 되었죠. 학부 때 배웠던 것이 지금도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제가 1학년 때 교양 국어 시간에 지금은 돌아가신 김윤식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첫 마디가 “이놈들아, 너네는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들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과 모습이 지금까지도 머리 속에 남아있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들의 그런 말씀들이 과목 공부에 대한 것보다는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분들이 우려하셨던 그런 모습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서울대학교에 들어와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들의
책임을 져야한다.”
교수님께서 우려하셨던 모습이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위기라는 게 매일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스트레스와 위기는 항상 있어요. 그 위기는 것이 개인의 위기라면 자신의 자리나 건강, 지인의 걱정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저에게도 이런 작은 고민들은 계속 있었지만 아주 큰 위기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감기가 걸리든 며칠씩 아픈 적은 있지만, 큰 병을 앓았던 것과 같은 큰 위기를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아마 그런 큰 위기가 없었기에 더 크지 못했나 생각을 하기도 해요 (웃음)”

다음으로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꼭 저와 같은 진로를 꿈꾸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농생대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할게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를 최선을 다해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 본인이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회사원이라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즐기고 잡는다면 어떤 기회든 오기 마련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후배들에게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추천하는 일과, ‘대학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 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대였기에 학교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서울 활동,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농생대 내의 샌드페블즈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도 시간이 나면 동아리 선후배들과 만나곤 해요.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어요. 이게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과 과정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인간관계, 상하관계에 대한 것들, 사회의 상하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가족관계와는 또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과 느낀 바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배울 점이 많은 말에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선배님의 계획을 여쭙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계획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마치고, 마치고 되면 봉사를 할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종교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이제 봉사를 통해 갚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껏 농업 관련된 일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제 경험을 굳이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기여하고 싶어요. 국내에서 회사생활, 사회생활이 끝이 나면 이런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퇴 전까지는 지금의 회사가 보다 훌륭한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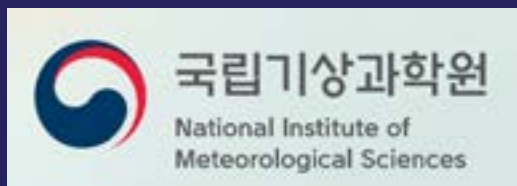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생대 졸업생’이 가지는 강점,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농생대 졸업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균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생대 후배들을 보면 여러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그로부터 균형이 잘 잡혀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업 이외에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생대 출신들이 밖에 나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균형감 있고 활발하게 잘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 16기 이해성
편집 | 16기 이해성
16기 이호영

오늘의 시간이 내일 보답합니다 좋아하는, 즐거운 일에 꼭 빠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응용생물학전공 88학번
국립기상과학원 재직
김규랑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학부는 농생물학과 88년 입학이고, 2학년 때 식물병리전공을 택해서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마쳤어요. 2001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으니 14년 동안 학교를 다닌거네요. 아, 중간에 6개월간 군 복무를 했고, 또 다른 6개월은 대학원 입학 전에 실험실에서 연구 보조를 했어요.

졸업 후에 1년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에서 포닥으로 플렉스 관측 타워 관리 등을 했고, 2002년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뉴욕주 농업연구소에 포닥으로 있으면서 기상 예보 모델을 이용해서 포도노균병 모델을 구동하고 어느 지역이 더 발병에 취약한 지를 지도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관측된 기상자료만 이용할 줄 알았는데, 이때 접해본 기상 예보 모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2016년에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현재 재직 중이신 직장(‘국립기상과학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기상 연구 국립기관이에요. 농학 연구에서 국가농업과학원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상관측, 일기예보 모델,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기상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응용기상연구과는 특히 사람들이 기상청에서 만들어 내는 기상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도시 열섬, 풍력 자원, 항공 기상, 인공 강우를 비롯해서 제가 맡고 있는 생명 기상이 주요 연구 분야예요.”

선배님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생명 기상을 맡고 있는데, 기상과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그 중에서도 현재는 보건 기상과 농업 기상을 연구하고 있는데 보건기상은 폭염이 왔을 때 온열 질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미리 분석해서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요. 폭염 특보가 몇 도에 발효되어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석 모델이기도 하구요. 농업기상에서는 농업 분야의 여러 가지 모델들(작황 예측 모델, 병충해 발생 예측 모델 등)을 기상 모델을 이용해서 잘 구동할 수 있도록 해상도와 국지적인 정확도를 높이는 일을 해요. 또한 기상청에서 직접 관측하지 않지만 병 발생에 무척 중요한 요소인 엽면 습윤 또는 이슬의 지속 시간을 일반적인 정규 기상 요소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모델도 만들고 있어요.

식물병리 중에서도 식물병역학 실험실에서 석박사를 하였는데, 식물병역학은 식물병의 발생을 정량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분야예요. 농장에 기주 식물과 병원체는 매년 비슷하게 존재하지만 병 발생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병 발생에 적합한 기상 조건이 얼마나 유지되었는가와 이 병 발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는가에 달려있어요. 기상조건을 이용해서 병 모델을 만들고 병 발생 확률을 예측한 다음 이 정보를 이용해서 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약재를 적시에 살포하는 것이 식물병역학의 주요 활용 분야예요. 이렇다 보니 처음 석사를 시작할 때도 전국 농업기술원 예찰단에 무인기상 관측기를 설치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포닥을 거치면서 기상 예보 모델까지도 이용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이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으로 취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학교 때 시작한 연구 질문을 풀고 있는 셈이지요.”

해당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기상과 생명체의 상호작용이라는 연구라는 주제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게다가 기후변화라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요. 농업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에 농업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생명기상 연구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십년 내 인구는 백억 명도 넘길 것이고, 기후 변화로 기존의 농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될 터인데, 농업 기상과 생명 기상 연구가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의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상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의 농업 기상 연구와 보건복지부 등의 보건 기상 연구 등 관련 연구비가 여러 부처에서 책정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에 관한 연구가 계속될 것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기상 정보를 기상 영향 평가나 보험 분야와 엮어서 기상 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학부 시절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학년 때의 고민은 아무래도 학교 공부와 나와 맞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1학년 때 몇 가지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뭐 그냥 고등학교 때 들었던 과목들인데, 내용이 거의 차이 없는데, 그냥 교재가 영어인 것만 좀 다르네 뭐 이 정도 생각이었지요. 2학년 들어 수원 캠퍼스로 내려가면서 전공 과목을 듣는데, 일반미생물학을 들으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원래 생물을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박은우 교수님의

일반미생물학과 실험 수업을 들은 후 앞으로 학교에서 한참동안 공부해도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박은우 교수님은 제 마음속의 롤 모델 또는 아이돌 같은 역할을 해 주셨고, 석 박사 지도 교수로 모시게 되었지요.”

일반미생물학과 실험을
들으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한참동안 공부해도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해당 분야,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2학년때의 일반미생물학 강의가 그 당시 들었던 다른 과목들에 비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후로도 박은우 선생님 강의는 모두 다 들었는데, 그 땐 몰랐지만 팬심 아니었을까 싶네요. 요즘도 학회에서 선생님 강의하시는 것 들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현재 직접 경험하는 직업이 대학 시절 생각 혹은 기대했던 진로와 비슷한가요?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기상청에 들어가리라고는 대학이 아니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도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진로라고 하면 계속 연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서 연구가 한 70%, 행정이 30% 정도 되니까 저로서는 만족스럽습니다. 단 국립기상과학원이 공공기관 이전의 일환으로 6년 전,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옮겼는데 가족들은 아직 서울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부분은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제주에서 새롭게 직장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테니 만족도가 더 높았겠지요.

대학 시절, 특히 학업 분야에서 지금의 자선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은우 선생님의 일반미생물학 강의가 제가 생물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어요. 김태욱 교수님의 식물분류학은 실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현 국립수목원장이신 이유미 박사님이 조교를 맡으셨는데, 관악산에서 실습하면서 즐겁게 산행까지 하면서 보고 만져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식물들이 실험실 분류 시험에서는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녹영이라는 사진 동아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익힌 사진 기술과 이때 만난 동기 및 선후배님들도 제 일생에 도움이 되었네요.”

지금 선배님의 위치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이제까지 평범하게 큰 시행착오 없이 살아왔습니다만 연구주제 관련하여 과장 등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힘들었어요. 한 번은 박은우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겪는 일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 이를 잘 받아들이게 됐고,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같은 진로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이 있다면?

“크게 봐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활용에 대해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누가 시키는 연구는 계속 못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연구원과 같은 연구쪽 진로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대학 생활 중 추천해주고픈 활동이 있을까요?

“우리 학교는 대학원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잖아요. 졸업 전에 대학원 연구실에서 실제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경험한다면 장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도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대학 졸업 전 꼭 해봐야 되는 일’로 추천하는 일과,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동아리 활동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동기나 친구들과의 사귀는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영어 때문에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결혼 전에 몇 년 영어권에서 생활했더라면 지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네요. 요즘 후배님들은 배낭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시지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10년 있으면 정년입니다. 그 전에 미리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집에서 아버지가 시작하신 농장은 같이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는 계속 고민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농장이 그다지 재미가 없었는데, 책임감과 제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더 재밌어졌네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사용한 시간이 내일 보답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느끼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데, 그건 두뇌의 정보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운 일에 꼭 빠져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를 응원합니다.”

인터뷰 | 16기 이해성
편집 | 16기 이해성
16기 이호영